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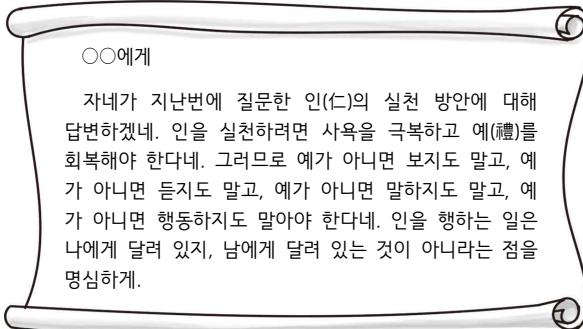
수험번호

2

제 [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군자가 되기 위해 의로움이 아닌 이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친소(親疏)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 ③ 공경의 마음보다 형식적 절차를 중시하여 예를 실천해야 한다.
- ④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직분에 충실히 해야 한다.
- ⑤ 정신적 자유를 위해 도덕규범에 얹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仁)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이며, 공경하는 마음은 예(禮)이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은 지(智)이다. 인의 에지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것이다.  
 을: 사람의 성정(性情)을 그대로 죽으면 반드시 쟁탈(爭奪)이 나타나므로 스승과 법도에 의한 예의로 이끌어 있은 뒤에 라야 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이로써 보건대 사람의 성은 악함이 분명하고, 그것이 선해짐은 인위 때문이다.

- ① 갑: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의(仁義)를 실현해야 한다.
- ② 갑: 옳은 행위의 반복적 실천으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③ 을: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타고난 성정에 따라 살아야 한다.
- ④ 을: 성인이 되기 위해 예법(禮法)을 익혀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인간의 일과 하늘의 일이 서로 무관함을 알아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간이다.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은 드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 ① 질투나 시기심과 같은 악한 감정에도 중용이 존재한다.
- ②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덕이다.
- ③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과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이다.
- ④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양극단을 피하는 산술적 중간이다.
- ⑤ 선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의지가 나약해도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다.

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그릇된 개념들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리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리는 확고 하기 때문에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억측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는 주저 없이 그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① 갑: 전통이나 권위 있는 학설이라면 비판 없이 수용해야 한다.
- ② 갑: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는 일반적인 명제에 도달할 수 없다.
- ③ 을: 확고부동한 진리로부터 연역하여 지식을 도출해야 한다.
- ④ 을: 모든 것을 의심하는 탐구 방법으로는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
- ⑤ 갑과 을: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5. 다음을 주장한 종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갖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 이 가운데 인간이 이성에 따라 행위를 하려는 것은 올바르다. 선은 행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 이것이 이 법의 첫 번째 계율이며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도출된다.

- ①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 ② 종족 보존의 성향에 따른 행위는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
- ③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이라도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 ④ 자연법을 준수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이다.
- ⑤ 인간은 신앙 없이도 이성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고 2

6.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이(理)에서 발한다, 기(氣)에서 벌한다.’라는 말의 본뜻은 사단은 이가 먼저 벌하고, 칠정은 기가 먼저 벌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兼)하여 말한다는 것일 뿐이다.</p> <p>을: 사단에 기가 없지 않은데도 이발(理發)이라 하고, 칠정에 이가 없지 않은데도 기발(氣發)이라 한 것은 하나는 이가 주(主)가 되기 때문에 이로 말한 것이고, 하나는 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기로 말한 것일 뿐이다.</p>
(나)	<pre> graph TD     A{A} -- 아니요 --&gt; C{C}     A -- 예 --&gt; B{B}     B -- 예 --&gt; 갑[갑의 입장]     C -- 예 --&gt; 을[을의 입장]     </pre> <p>Legend: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弧 : 사상가의 입장   </p>

<보기>

- ㄱ. A: 이와 기는 서로 뒤섞이지도 서로 떨어지지도 않는가?
- ㄴ. A: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감정[情]만을 일컫는 별칭인가?
- ㄷ. B: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감정인가?
- ㄹ. C: 이는 벌하게 하는 까닭일 뿐 스스로 벌하지 않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p>갑: 폐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가 ‘폐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의 폐락은 방탕한 자들의 폐락이나 육체적인 폐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폐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p> <p>을: 세상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육체의 고통, 폐락, 부, 평판 등의 획득과 상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의 힘에 좌우된다.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심란해질 것이다.</p>
---

<보기>

- ㄱ. 갑: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이성적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 ㄴ. 갑: 참된 폐락을 얻기 위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ㄷ. 을: 정념에 초연한 자세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 ㄹ. 갑과 을: 은둔하는 생활보다는 공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색(色)은 본래부터 그 일체가 무상(無常)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法)이다. 이를 알고 나면 그 색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번뇌의 해로움과 불꽃, 근심과 번민은 모두 끊어져 없어진다. 그것이 끊어져 없어진 뒤에는 집착할 것이 없게 되고, 집착할 것이 없게 된 뒤에는 안락하게 머무르게 되며, 안락하게 머무를 뒤에는 열반을 얻게 된다.

- ① 집착을 버리고 열반에 이르면 윤회(輪迴)할 수 있다.
- ②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독(三毒)의 제거가 필요하다.
- ③ 인연(因緣)에 의해 생겨난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 ④ 고통은 만물의 무상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 ⑤ 여덟 가지 바른 수행[八正道]을 통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지한 사람은 외부 원인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요되어 결코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신과 사물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에 반하여 현명한 사람은 거의 영혼이 혼들리지 않고, 자신과 신과 사물을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인식하며, 언제나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소유한다.

- ①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인격신을 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 ③ 진정한 자유를 위해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해야 한다.
- ④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 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의 산물임을 알아야 한다.

1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우리의 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이다.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여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가운데 조화가 나온다. 서양인은 말에 차례가 없고, 한울님을 위하여 단서가 없으며,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뿐이다.

을: 난세를 구하는 데는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이단을 물리치는 데는 정학(正學)을 밝히는 일보다 급한 것이 없으니, 정학을 밝히는 데는 다만 군주가 한마음으로 천리와 인욕을 변별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 ① 갑: 한울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 ② 갑: 신분과 성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실현해야 한다.
- ③ 을: 민생 안정을 위해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 ④ 을: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여 예악과 도덕을 보존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

11.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마음이 곧 이(理)이다.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 없고, 임금을 섬기는 경우 임금에게서 충성의 이치를 구할 수 없다. 을: 천하의 사물은 이가 없는 것이 없다. 오직 이치를 궁구함에 있어 다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에 부진함이 있는 것이다.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lt;보기&gt;

- ㄱ. A: 효의 이치는 마음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ㄴ. B: 도덕적 실천에 앞서 도덕적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 ㄷ. C: 인간과 사물에는 모두 천리(天理)가 내재되어 있다.
- ㄹ. C: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수양을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열자(列子)는 바람을 타고 경쾌하게 떠돌며 복을 바라거나 급급해하지 않으나 여전히 의지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천지의 기(氣)를 타고 끝없는 경지에서 노니는 사람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인(至人)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신인(神人)은 공적을 쫓지 않고, 성인(聖人)은 명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 &lt;보기&gt;

- ㄱ. 좌망(坐忘)을 통해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ㄴ. 상대적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 ㄷ. 오감(五感)을 통해 체득한 도(道)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 ㄹ. 외물(外物)에 얹매이지 않기 위해 예악을 바로 세워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맹자는 성(性)을 논함에 반드시 기호(嗜好)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그 말에 ‘입이 맛에 대하여 기호가 같고, 귀가 음악에 대하여 기호가 같고, 눈이 색에 대하여 기호가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성이 선(善)에 대하여 즐기고 좋아하는 바가 같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성의 본래 뜻이 기호에 있음이 아니겠는가.

- 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사단(四端)을 지니고 있다.
- ②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권능이 있다.
- ③ 인의예지의 덕(德)은 선행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형성된다.
- ④ 인간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 ⑤ 형구의 기호는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도덕적 기호이다.

1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의무에서 그리고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에 의해 정해진다.

## &lt;문제 상황&gt;

취업 준비생 A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면접을 보기 위해 시험장으로 가던 중 한 노인이 발목을 다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면접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는 고통스러워하는 노인을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타인을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심에 근거하여 행동하세요.
- ②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 준칙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③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④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⑤ 사회적 유통성을 증진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1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어떤 행위나 성질이든 그것이 관찰자에게 시인의 감정을 가져다준다면 덕이요, 그 반대라면 악덕으로 규정된다. 즉, 도덕성은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 이성 홀로는 그 어떤 의지적 활동의 동기도 될 수 없다. 행위의 동기는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성에 의해 지도될 뿐이다. 혐오나 선호가 어떤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것은 고통이나 쾌락에 대한 전망 때문이다.

## &lt;보기&gt;

- ㄱ.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다.
- ㄴ. 이성적 판단을 기준으로 덕과 악덕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 ㄷ. 사회적 유용성을 가져오는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일으킨다.
- ㄹ. 인간의 공감 능력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고 2

16.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장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경우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경우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입니다.



갑

아닙니다. 각 개인이 판단한 모든 것이 참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 옳은지 그린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을

- ① 갑: 갑각적 경험에 아닌 이성으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
- ② 갑: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존재한다.
- ③ 을: 영혼의 수련을 통해 선에 대한 참된 맘을 인식해야 한다.
- ④ 을: 악행은 무지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옳고 그름은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 정의롭게 되는 것은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이다. 국가 안에 있는 세 계층이 저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할 때 국가가 정의롭게 되듯이, 우리 각자의 경우도 영혼의 각 부분이 서로를 참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영혼의 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 ① 다스림을 받는 계층에 한하여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지혜로운 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 ③ 수호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재화의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 ④ 국가의 수호와 관련된 일은 민주적 절차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⑤ 영혼의 성향과 무관하게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도(道)는 항상 무위(無爲)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도를 상실한 이후에 덕(德)이 있게 되는 것이고, 덕을 상실한 이후에 인(仁)이 있게 되는 것이며, 인을 상실한 이후에 의(義)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의를 상실한 이후에 예(禮)가 있게 되는 것이다.

<보기>

- ㄱ. 인의(仁義)의 덕을 함양하여 도를 실현해야 한다.
- ㄴ. 겸허히 자신을 낮추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 ㄷ. 지혜로운 사람을 본받아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 ㄹ. 인위(人爲)가 더해지지 않은 무위의 덕을 따라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9.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은 그 본성이 둘이 아니고 참됨과 거짓됨의 두 문(門)은 다르지 않으므로 '일(一)'이라 한다. 둘이 없는 곳에서 모든 진리가 가장 참되고 헛되지 않아 본성이 스스로 신령하게 알기 때문에 '심(心)'이라 한다.  
을: 어찌 한번 깨쳤다 하여 뒤에 닦는 일을 벼릴 수 있겠는가. 깨친 뒤에도 늘 비추고 살펴서 망념이 홀연히 일어나거든 따르지 말고, 덜고 또 덜어서 무위에 이르려야 비로소 궁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 ① 갑: 각 종파의 특수성을 없애고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
- ② 갑: 더러움과 깨끗함이 본래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 ③ 을: 모든 습기(習氣)를 제거해야만 돈오(頓悟)에 이를 수 있다.
- ④ 을: 단박에 깨친 이후 선정과 지혜의 선후를 구분해 달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수행을 통해 열반에 도달해야 불성을 형성할 수 있다.

20.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 을 모두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폐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것은 오직 고통과 폐락뿐이다.

을: 고상한 폐락과 저급한 폐락을 둘 다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저급한 폐락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인간의 동물적 본성으로 느끼는 폐락보다는 고상한 기능에 서 나오는 폐락이 그 종류에 있어서 더 선호되어야 한다.

<보기>

- ㄱ. 폐락을 평가할 때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가?
- ㄴ. 도덕적 행위의 목적을 공리의 증진에 두어야 하는가?
- ㄷ. 개인의 행복이 감소해도 사회 전체의 행복 증대가 가능한가?
- ㄹ.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